

본문: 요한복음 2 장 13-22 절

제목: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1.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분노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심인 몇 가지가 있죠. 스파게티, 피자, 커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들은 매우 흥분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 면을 반으로 부러뜨리거나 가위로 자르면 그들은 화를 냅니다.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거나 스파게티에 케첩을 뿌리는 것도 그들을 자극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커피에 물을 타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그들은 극혐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얼마나 스파게티와 피자 그리고 커피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국 식당에 한 외국인이 된장국을 시켜 놓고 스리라차 소스를 듬뿍 뿌리고 있다면 비슷한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식당 중에 김치찌개에 손 바닥 만한 까망베르 치즈를 빠뜨려서 파는 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대상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룰이나 개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룰이 어겨질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 집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이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 함부로 대우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은 흥분과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하신 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셨고 온유하신 분이셨고 인내심이 풍성한 분이려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이 화를 주체를 못하시고 상을 뒤집어 엮고 채찍질을 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하신 건가요? 그분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참았어야 하고 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2. 가나 혼인잔치와 잇대어 있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엮은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시위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의도로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에 배치한 것일까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 번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주요 사역 무대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관 복음과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갈릴리로 갔다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 년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구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역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와 잇대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앞으로 펼치실 사역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정결예식에 쓰인 돌 항아리 여섯 개 안에 담긴 물이 완전하게 포로주로 변화하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돌항아리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의 기능이 멈춰 버린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정결과 거룩에 강박증을 보이는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통해 시작하신 모든 민족을 초청할 잔치를 다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멈출 위기에서 예수님은 아예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새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잔치를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 이어가시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런 의미와 잇대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전 종교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져 있고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왜 흥을 깨는 종교이고 잔치를 멈추게 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는지를 요한은 그 중심 장소인 성전 마당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3. 장사판으로 변한 아버지 집

유대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죄를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 아니라 병을 치유 받고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멈춰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극대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46 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세로 400 미터 가로 300 미터의 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두 개 정도의 면적 정도 될까요? 이 성전의 가장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가장 깊은 내부에는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성전 청결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은 성전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장사가 이뤄졌습니다. 어떤 장사일까요?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뤄졌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물을 죽여서 태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이곳에서 팔았던 겁니다. 갈릴리 같은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키운 소나 양을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그런 가축들에게는 불합격이라고 제사에 써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야만 했어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사야만 했죠. 그런데 멀리 로마나 그리스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사려면 성전에서 쓰이는 돈인 쉐켈로 바꿔야 했어요. 성전 바깥에서는 1 데나리온에 10 세켈로 바꾼다면 성전 안에서는 5 세켈 정도로 시세 보다 훨씬 비싸게 돈을 바꿔야 했죠. 환전상들은 자리를 얻기 위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뒷돈을 많이 주어야만 했어요. 환전상들이 차려 놓은 테이블은 이동식 은행과도 같았던 겁니다. 성전이 시장으로 바뀌 버렸고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바글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더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과 제사를 독과점하는 장사치이자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돈벌이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14 절의 보셨다라는 단어가 전에 말씀드렸던 유리스코(eurisko)라는 헬라말입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응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노끈을 들어 양과 소를 성전 바깥으로 쫓으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노끈이 아니라 혁대를 푸셔서 내리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혁대를 푸셔서 그것을 노끈으로 만드셔서 치신 것이겠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market

place 로 만들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시면서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시편 69 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스파게티와 피자에 진심인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예수님의 열정과 애정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4. 독생자의 책임감

유대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강촌에서 굴러온 청년 하나가 지금 명절 분위기를 다 망쳐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들이 투입되고 뒤늦게 연락 받고 달려온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표징이란 말은 헬라어 세메이온인데요 신이 함께 하는 싸인을 보여달란 말입니다. Credential 을 보여달라는 말이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위임장이 있어서 그런건지를 대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면 자신이 3 일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 년이 걸렸는데 3 일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다니 말이 안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친절하게도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두고 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실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성전의 기능을 직접 나타내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기능을 못하는 성전을 대신해서 자신이 몸을 입고 성전이 되어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아들의 책임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독생자 의식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유린 당할 때, 내 아버지 집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뀔 때 아들은 아버지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My father)'라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있었어도 '나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런 독생자 의식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5 장 18 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노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집이 이 꼴이 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독생자 의식이 잘 표현된 비유가 마태복음 21 장에 나옵니다. 바로 포도원의 소작농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즙을 짤 도구도 만든 후 잠시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농사를 지을 농부들을 찾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꾸는 대신 주인에게 일정한 소출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은 종을 보내 임대료를 받아 오게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아들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달리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해 버립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 장의 말씀을 베이스로 합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 밝힙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포도원을 임대하는 임차인에 불과했습니다. 포도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미쉬파트와 쯤다카였습니다. 미쉬파트와 쯤다카는 공의와 정의로 번역되는 말이죠. 미쉬파트는 사법적 정의이고 쯤다카는 분배적 정의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잠시 가나안 땅에서 셋방을 살던 이스라엘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실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또한 미쉬파트와 쯤다카는 사라지고 껍대기만 남게 되어버린 이 현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만히 지켜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5.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교를 장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무엇입니까? 장사란 어떤 물건에 부가가치를 붙여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투자와 이윤창출이 장사에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성전 종교는 장사였습니다. 로마에 상납금을 지불하여 성전 이용권을 따내고, 그 성전 이용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전 환전상, 가축 판매상들에게 고액의 돈을 받고 성전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쉬파트와 쯤다카라는 알맹이는 온데 간데 없이 장삿속만 남은 것입니다. 시편 84 편 3 절에는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제단에는 참새와 제비도 머물 곳이 있을만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Market place 에는 제물을 살 수 없어 울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환영 받고 모두가 사람 대접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만나겠습니까?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한 분노도 없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집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아버지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자비가 넘쳐야 할 아버지 집이 욕망과 경쟁으로 점철된 현실은 다만 예수님 시대의 성전 뿐일까요?

예수님은 기능을 상실해 버린 성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성전을 대신해 이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죄사함과 화해와 치유를 몸소 실천해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전에서 느끼는 그 따스함과 영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창조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발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순교자 키프리아누스 (Caecilius Cyprianus)는 성령이 출발시킨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라 칭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 교회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되며, 교회의 숨결을 호흡하며 소생한다. 만일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구원을 맛보고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 죄사함과 화해와 치유가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하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텐데 세상과 다를 게 없다고 한탄하며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사판이 되어버린 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그럴까요? 오늘 날의 교회는 과연 장사판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의 원리가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먹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장하였느냐를 숫자로 환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느냐를 교인이 얼마나 늘었고 헌금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통해 판단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7 명의 교육전도사가 한 방을 썼습니다. 그 방의 큰 벽에 각 부서의 매일 출석 인원을 체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야 하는 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드를 정말 뜯어내고 싶었습니다. 숫자로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평촌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구별 사랑 온도계라는 것이 교회 로비에 크게 전시되어 있더군요. 교구별로 새신자를 얼마나 교회로 전도시켰는지를 온도계로 표시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랑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장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에 피택 되기 위해 돈을 들여 선거 운동을 하고 웬만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개교회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목사 개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이런 현장을 뒤집어 엮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경쟁을 조장하고 숫자로 가치를 먹이며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장사판입니다. 과연 교회는 장사판이 아니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6.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을 보며 분노가 생기시나요? 분노가 생겨야 정상입니다. 혁대를 풀어서 아버지의 집이 유린당하고 농락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아버지의 집이 몇 사람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데도 그러려니 합니다. 몇 몇 목사들은 교회가 개인의 소유물인양 생각하며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야망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은 큰 건물과 많은 성도수가 마치 그들의 계급장이라도 되는 양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 시골에서 그리고 오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장사의 논리에 잠식 당한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상황이 세상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제 혁대를 풀어서 내리치고 싶더라도 다시 묶을 수 밖에 없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기 보다 좀 더 배불리 먹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을 보며 이런 내가 어찌 혁대를 풀어서 분노할 수 있겠는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집을 향한 열심과 분노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유린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욕받이가 되는 이 현실을 슬퍼하며 분노하며 상을 뒤집을 용기가 없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성전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매개물입니다. 성전은 세상 끝에 있는 만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매개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로 모인 후 흠어지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치유가 일어나야 하며,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다하나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만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도록 다리를 놓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의 욕망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참새도 이곳에서 쉼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가질만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환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고, 미쉬파트와 쓰다카의 임대료를 잘 지불해 드리는 참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과 열망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의 성전이자 몸된 교회인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욕망과 장삿속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닮자고 시작한 이 사순절의 순례 여정 가운데 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